



지역문화기반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농촌관광의 관점에서 -

A Study of Convergence Model Tourism Creation Based Upon Local Culture: Focus on Rural Tourism on JeJu Island

장 헤 원**

Jang, Hae-Won

요약 : 지금까지 관광산업에서 융합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융합관광 중 대표적인 가치창출형으로 분류되는 농촌관광을 대상으로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심층면접, 그리고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면접에서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 문화기반 농촌관광을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문화기반 융합관광의 창출 모형은 크게 동인, 과정, 결과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융합의 동인은 지역자원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융합의 과정에서는 지역문화를 재창조하며, 융합의 결과로는 생태문화관광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성공모델로 시사점을 갖는다.

핵심용어 : 융합관광, 농촌관광, 지역문화, 지역문화기반 융합관광 창출모형, 융합 동인, 융합 과정, 융합 결과, 생태문화관광

ABSTRACT : Until recently, there has been little attention paid to the study of convergence within the tourism industry. This new research challenges creation models of convergence tourism based on local culture by focusing on rural tourism. This is because the rural form has been classified as a value creation type of convergence tourism. To accomplish this study objective, theoretical review, deep interview,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simultaneously. Using semi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data, results were analyzed and then studied empirically for a village in which rural tourism based local culture had been promoted. We found that the model of convergence tourism based local culture was defined by driving forces, processes and consequences of convergence. In this research, driving forces of convergence were present in local resources as well as the process of recreation within the local culture. Furthermore, the most significant consequence of convergence was the creation of eco culture tourism.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onvergence tourism would make a successful business model for the future tourism industry. Finally, this research acknowledg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Key words : Convergence Tourism, Rural tourism, Local culture, Convergence tourism Creation model, Local culture based convergence tourism, Driving forces of convergence, Process of convergence, Consequences of convergence, Eco culture tourism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2016213)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mail: lovepiano9928@hanmail.net

I. 서 론

IT의 발전과 미디어 매개체의 등장,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소비자의 문화적 자각 및 다변화된 욕구 증대와 같은 새로운 변화들은 관광의 수요, 개발대상, 개발주체, 개발방식 등 관광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동원·전미숙·정란수·김수아·김영주, 2014). 특히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관광산업과 타 산업분야, 신기술 간의 융·복합의 증대이다. 과거의 획일화된 대량관광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목적으로 추구되는 소비자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관광, MICE산업, 의료관광 등 융합관광을 통한 외연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융합관광 중 대표적인 가치 창출형으로 분류되는 농촌관광은 FTA협정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촉진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주도에 의해 추진되어 오면서 여전히 공급자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동원 외, 2014). 더욱이 농촌관광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주체적 운영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농촌관광 추진과정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성장시킨다(배기택, 2012). 따라서 농촌관광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을 관점에서 농촌관광이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장혜원·오상훈·최병길, 2017).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수요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농촌관광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배경에 의해 본 연구는 농촌관광을 대상으로 마을의 문화자원이 관광자원화 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실천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성과에 집중된 그동안의 융합관련 연구는 관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융합적 성격과 맞물려 이에 대한 이론연구의 필요성을 간과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의 추진과정의 구조와 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김성호, 2012; Weaver, 2007). 즉, 농촌관광 추진에 직접 참여한 마을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진배경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조사를 병행하여 정성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어 최종적으로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관광산업에서의 융합을 실행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개발된 모형은 리더 역량(남인근, 2015; 박한식, 2008; 전진혁, 2006), 관광행태(윤유식·박덕병·이민수, 2009), 비즈니스(박시현, 2015; 박종안, 2011; 신동선, 2013), 자원평가(장우석, 2013), 정보서비스(변우희·이정열·변성희, 2012) 등에 관련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적 주제로 접근하고 있거나 사례분석을 통한 정성적 연구가 다수이다. 따라서 추진과정의 요소별 연계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을 제안하고 있어 통합적 관점의 농촌관광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이 추진된 배경에서부터 과정, 결과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통찰하고 이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현상의 복잡한 형태, 과정, 그리고 기능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모형개발을 제안함으로써(Rubinstein, 1974) 관광이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융합관광의 개념 및 특성

융합은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수렴을 의미한다. 상태의 개념이라기보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의 개념이다(김성호, 2012). 융합의 개념을 산업에 적용한 산업융합은 기존 산업의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으로 정리된다(안희자·심원섭, 2013; 장혜원, 2016; 지식경제부·한국생산기술원, 2011; Weaver, 2007). 따라서 관광산업이 타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것을 융합관광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관광분야에서 융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실천적 의미로 접근해 왔다(장혜원, 2016). 이는 관광산업이 본질적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 숙박 등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재로서 관광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산업 간의 융합은 대체재끼리 합쳐지는 과정이다(Weaver,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융합 관련 연구는 융합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보다는 주로 융합 이후의 가치창출에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술과의 융합(전인식, 2016), 마케팅(신희수, 2009), 공간 개발(최아람, 2011), 의료관광 활성화 및 정책(윤영석, 2011; 최기동, 2010), 농촌관광 정책(소봉명, 2008; 오우현, 2016), MICE산업의 영향(최지만, 2012), 스포츠 융합(최성훈, 2016) 등의 연구에서 관광과 타 영역과의 연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외에서는 융합관광을 과정 중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Lei(2000)는 산업 융합의 차원에서 관광자원의 공간분포가 관광객

의 공간이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융합적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반드시 고려한 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관광객의 관점에서 환경 또는 문화와 융합을 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있다(Apostolakis, 2003; Cohen, 1992; Reisinger, Mavondo & Crofts, 2009).

하지만 융합이란 어떤 핵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다른 영역이 보완하거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탈중심성과 수평성의 구조에서 제3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혁신성이 바탕이 된다(Schumpeter, 1934; Weaver, 2007). 이 같은 관점에서 장혜원(2016)은 융합관광이란 관광산업과 타 산업이 수평적 네트워크와 동조를 통해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결합하고 내발적 혁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하였다. 이는 융합관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합의 원인', '융합의 과정', '융합의 결과' 등 융합의 구조 및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Weaver, 2007).

융합관광의 유형으로는 농촌관광, 의료관광, MICE산업, 한류관광 등을 들 수 있다(김사현, 2006; 안희자·심원섭, 2013; 장혜원, 2016). 이 중 농촌관광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재창조하는 가치창출형 융합관광이다.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지역의 자원을 체험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방문객에게 제반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유발되며, 관광객들에게는 향토적 매력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농촌관광은 추진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역량부족, 수익창출의 한계상황 등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영수·박종안, 2009).

2. 지역문화 및 농촌관광의 특성

지역문화는 지역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이나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문화에 공간적 의미가 첨가된 것으로, 그 지역의 역사, 전통, 공동체 의식 등을 포함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것이 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다(정철현, 2005). 또한 지역문화란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통상 중앙의 종속 또는 그와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본래 지역문화라는 용어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중앙문화와 구별되는 것으로 취급되면서 생겨난 용어로 보인다. 물론 이는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앙과 지역이라는 분류기준 자체가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한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문화를 논할 때 지역문화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조광식, 2007).

이 같은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아온 지역문화에서도 농촌문화는 그동안 개발 중심의 마을사업을 거치면서 원형과 특성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점에서 농촌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관광은 지역 가치에 대한 재인식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농촌에서 행해지는 관광이라는 농촌관광의 사전적 정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

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전해져 오는 노동 또는 생활과 관련된 독특한 문화를 관광과 융합하여 관광자원화를 꾀한다는 것은 지역문화의 보존은 물론 지역민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부심을 유발함으로써 주민통합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농촌관광의 추진과정에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성장하고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된다(장혜원, 2016; 장혜원 외 2017).

이런 배경에 의해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오승영, 2009). 특히 성장 중심의 농촌개발에서 오는 역사문화자원의 훼손, 공동체문화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중심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농촌관광을 창출하고 있다. 농촌경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촌의 다양한 전통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관광사업이 여가의 확대를 주도한다는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강신겸, 2002). 농촌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농업 관련 시설을 농업역사 및 생활과 관련된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인들의 문화적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강원형, 2013). 대표적으로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과 같은 마을단위 사업을 통한 농촌관광

〈표 1〉 2000년대 대표적인 문화중심 농촌마을사업

주관부처	사업명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농어촌축제지원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들은 지역 주민참여, 상향식 공모제, 농촌의 고유한 환경을 활용한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방한영, 2003).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모형

본 연구의 목표는 농촌관광이 창출되는 모형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에서 융합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모형이란 실제 세계에 대한 추상적 기술 또는 물리적인 현상이나 개념의 보다 복잡한 형태, 과정, 그리고 기능에 대한 단순화된 표현이다(Rubinstein, 1974).

본 연구는 융합관광이 창출되는 모형을 개발한 연구의 사례가 없어 이의 이론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인식에 의해 비롯되었다. 따라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미디어, 문헌고찰 등 이론조사를 하였고, 이어 이론조사에 기초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연구를 하였다. 다음으로 정성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관광, 지역문화, 농촌관광과 관련된

문헌 및 미디어 등 이론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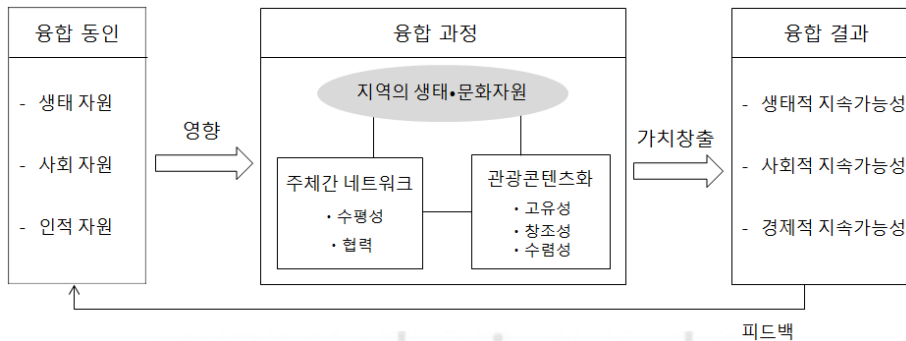
둘째, 이론조사에 근거한 전문가 대상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마을단위의 사업과 관련된 농촌관광을 추진한 배경, 과정, 결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론조사, 전문가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조화하고 실증조사를 하였다.

넷째, 위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문화기반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로서 연구모형은 Weaver (2007)의 융합이론, 김영수·박종안(2009)의 지속가능한 체험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 장혜원(2016), 장혜원 외(2017) 등의 농촌관광의 창출과정에 대한 이론연구에 근거하였다. 큰 틀에서는 융합의 동인, 융합의 과정, 융합의 결과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하위 요인도 포함되었다.

먼저, 융합의 동인에서는 생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였다. 생태적 자원과 인적 자원 등은 마을의 대내적 요인을 의미하며 사회자원은 마을의 대외적 요인을 의미한다. 융합의 과정에서는 추진주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지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역자원의 관광콘텐츠화로 구성하였다. 네트워킹에는 수평성, 협력 등이 포함되었고, 관광콘텐츠화에는 고유성, 창조성, 수렴성 등의 요인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융합의 결과로는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로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의 요인을 포함하였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크게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로 구성되었다. 먼저 정성적 연구로는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농촌사업과 관련된 참여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로 총 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1~5회 실시하였다. 면접은 융합의 동인, 과정, 결과 등을 중심으로 개방형으로 실시되었다. 면접내용은 피면접인의 허락 하에 녹음하였고, 이에 대한 전사를 거쳐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 후에는 동료검토를 통해 내용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대상의 심층인터뷰 결과 및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추출하여 실증조사를 하였다.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문화관련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정량적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강원형(2013)의 연구를 참조했는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주민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둘째, 사업의 내용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지역문화를 중점적으로 결합하였다. 설문문의 내용은 크게 융합의 동인·과정·결과를 범주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계열을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인식, 지역문화 재창조, 생태문화관광 창출 등으로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조사원이 주축이 되어 현장조사를 하였다. 설문문의 개요 및 내용은

〈표 2〉 심층인터뷰 조사 개요

대상	직위	인터뷰 횟수	참여 마을사업명
A	제주가시리마을 전 이장	3	신문화공간조성사업
B	제주가시리마을 이장	2	신문화공간조성사업
C	제주가시리마을 사무장	1	신문화공간조성사업
D	제주가시리마을 농촌관광 관리자	5	신문화공간조성사업
E	제주신흥2리 이장	1	명품 생태체험 마을
F	제주신흥2리 마을 사무장	1	명품 생태체험 마을
G	제주마을만들기 관련 협회장	1	-
H	제주 마을만들기센터장	3	-
I	제주 마을만들기센터 연구원	1	-
J	마을만들기 관련 협동조합 팀장	2	-

아래의 <표 3>, <표 4> 등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융합의 동인은 생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 등의 3 요소로 구성되었다. 융합의 과정에는 주체간의 네트워크에는 수평성, 협력 등의 요소를 포함하였으며, 관광콘텐츠화에는 고유성, 창의성, 수렴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융합의 결과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은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은 먼저, 인구통계학적 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 개념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개념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도분석, 요인들의 단일차원의 적정성 검정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어 각 요인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설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 이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의 동인은 농촌관광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마을과 관련된 생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둘째, 융합의 과정은 농촌관광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로 수평성, 협력, 고유성, 창의성, 수렴성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셋째, 융합의 결과는 농촌관광 추진을 통해 창

<표 3>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시기	2017. 05. 02~ 2017. 05. 30
대상	제주지역 마을 주민
조사범위	농촌관광 추진경험(추진배경, 과정, 지속가능성 등), 개인적 특성

<표 4> 설문의 구성 및 측정방법

구분	설문 내용	측정방법	출처
융합의 동인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인식 생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		
융합의 과정	지역문화 재창조 - 주체간의 네트워크 · 수평성 · 협력 - 관광콘텐츠화 · 고유성 · 창의성 · 수렴성	등간척도	김영수·박종안(2009), 장혜원(2016), 장혜원 외 (2017), Weaver(2007)
융합의 결과	생태문화관광 창출 - 생태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지속가능성 - 경제적 지속가능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소득 등	명목척도	

출된 결과를 구성하는 요소로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농촌 관광이 창출되는 과정에 대한 통합적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정성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이의 표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총 208명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연소득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

한 결과가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본의 성별에서는 남성이 176명으로 8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32명으로 15.4%로 남성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본의 연령에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16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40대는 96명으로 46.2%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0대는 40명으로 38.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60대와 70대의 연령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주민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표본의 연소득에서는 3,001만 원 이상 ~ 4,000만 원 이하가 122명으로 29.9%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2,001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로 38명을 차지하면서 18.3%를 보였으며, 4,001만 원 이

<표 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원 수(명)	비율(%)
성별	남	176	84.6
	여	32	15.4
	합계	208	100
연령	20대	16	7.7
	30대	16	7.7
	40대	96	46.2
	50대	40	38.5
	60대	-	-
	70대 이상	-	-
	합계	208	100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22	10.6
	2,001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38	18.3
	3,001만 원 이상 ~ 4,000만 원 이하	122	29.9
	4,001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	24	11.5
	5,001만 원 이상	2	0.1
	합계	208	100

상 ~ 5,000만 원 이하에서는 12명으로 11.5%를 차지하였다. 2,000만 원 이하는 22명으로 10.6%를 차지하였다. 한편 5,001만 원 이상에서는 2명으로 0.1%에 그쳤다.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은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 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 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1.0 이상으로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융합 동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융합의 동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명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적자원, 문화자원, 정책지원, 사회자원으로 명명하였다. 총 분산설명력은 83.12%이었으며, 요인 중 인적자원은 24.82%, 문화자원은 23.50%, 정책지원은 20.72%, 사회자원은 14.08%의 분산비율을 보였다.

요인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KMO (Kaiser-Meyer-Olkin)값이 .141로 나타나 변수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artlett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인을 측정하는 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적자원 .837, 문화자원은 .834, 정책지원은 .762, 사회자원은 .751 등으로 나타나 권고기준을 초

〈표 6〉 융합의 동인 요인분석 결과

개념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인적 자원		· 마을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주민이 많음	.92	.93	3.22	24.819	.837
		· 마을발전에 관심을 갖는 리더들이 있음	.91	.87			
		· 마을에 역량 있는 주민들이 많음	.73	.80			
		· 우리 마을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음	.68	.91			
문화 자원		· 마을에는 독특한 문화가 잘 유지되고 있음	.86	.92	3.05	23.496	.834
		·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음	.82	.84			
		· 생활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음	.69	.87			
		· 야생 동·식물이 잘 보존되고 있음	.63	.87			
정책 지원		· 마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은 충분함	.87	.78	2.69	20.722	.762
		· 마을사업의 정책지원은 타당함	.76	.87			
		· 마을사업의 국가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음	.65	.66			
사회 자원		· 마을 일에 조인해 주는 전문가가 있음	.94	.89	1.83	14.081	.751
		· 마을과 연관된 사회지도층 인사가 많음	.76	.82			
		· 마을과 네트워크 하는 행정, 기업 등이 있음	.63	.87			

주: KMO(Kaiser-Meyer-Olkin): .141, Bartlett 구형성 검정: 2334.090(p=.000)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융합 과정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융합의 과정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총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요인명은 수평성, 혁신성, 고유성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수평성은

44.13%, 혁신성은 22.47%, 고유성은 16.04%의 분산비율을 보였다. 신뢰도 지수는 수평성 .936, 혁신성 .780, 고유성 .620 등으로 나타났다.

3) 융합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융합의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

〈표 7〉 융합의 과정 요인분석 결과

개념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융합 과정	수평성	·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함	.912	.855	4.413	44.127	.936
		·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는 민주적임	.904	.902			
		·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900	.862			
		· 행정, 자문기구 등과의 의사결정과정은 수평적임	.851	.766			
		·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847	.869			
혁신성	· 기존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함 · 마을사업은 혁신적임 ·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융합함	.885	.886	2.247	22.473	.780	
		.801	.795				
		.747	.738				
		.805	.869				
고유성	·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함 · 마을사업에서 창출된 건축/전시물/문화재는 진품임	.724	.722	1.603	16.035	.620	

주: KMO(Kaiser-Meyer-Olkin): .343, Bartlett 구형성 검정: 1684.982(p=.000)

〈표 8〉 융합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개념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융합 결과	미래 가치	· 마을사업으로 관광수입이 증가함	.939	.886	4.498	40.888	.923
		· 마을사업으로 고용이 창출됨	.910	.877			
		· 마을사업으로 지역소득이 향상됨	.867	.897			
		· 마을사업으로 마을의 위상이 향상됨	.855	.784			
		· 마을사업으로 마을의 인지도가 상승함	.686	.508			
		· 마을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652	.667			
전통 가치	· 마을사업은 환경보존에 기여함 · 마을사업은 지역문화보존에 기여함 · 마을사업은 생태환경보존에 기여함 · 마을사업은 마을의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데 기여함 · 마을사업은 전통문화보존에 기여함	.929	.904	4.432	40.288	.953	
		.899	.901				
		.892	.817				
		.881	.806				
		.811	.882				

주: KMO(Kaiser-Meyer-Olkin): .280, Bartlett 구형성 검정: 1474.263(p=.000)

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명은 미래가치와 전통가치로 명명하였다. 미래가치는 40.89%, 전통가치는 40.29% 등의 분산비율을 보였다. 고유치

는 미래가치 4.498, 전통가치 4.432로 나타났다. 신뢰도 지수는 미래가치 .923, 전통가치 .953으로 나타났다.

〈표 9〉 각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도구	χ^2	p	GFI	RMR	NFI	CFI	
융합 동인	인적자원	18.016	.000	.922	.062	.930	.937
	문화자원	31.564	.000	.865	.015	.874	.880
	정책지원	3.916	.014	.977	.032	.952	.976
	사회자원	79.694	.000	.994	.036	.988	.989
융합 과정	수평성	75.999	.000	.816	.034	.873	.880
	혁신성	8.470	.014	.963	.040	.943	.955
	고유성	12.781	.000	.841	.051	.814	.824
융합 결과	전통가치	33.634	.000	.891	.062	.936	.939
	미래가치	52.916	.000	.893	.041	.912	.926

〈표 10〉 상관관계분석

구분	인적 자원	문화 자원	행정 지원	사회 자원	고유성	수평성	혁신성	전통 가치	미래 가치
인적 자원	-	.232*	.069	.372**	.670**	.203*	.209*	.202*	.391**
문화 자원		-	.511**	.243*	.539**	.375**	.479**	.266**	.306**
행정 지원			-	.085	.303**	.017	.220*	.422**	.425**
사회 자원				-	.569**	.454**	.385**	.431**	.482**
고유성					-	.522**	.418**	.535**	.551**
수평성						-	.763**	.267**	.553**
혁신성							-	.412**	.560**
전통 가치								-	.590**
미래 가치									-

주: p*(0.05, p**(0.01)

3.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함께 측정도구의 구성개념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

기 위하여 SMC 0.4를 기준으로 이에 못 미치는 항목을 제거하였다. 분석결과 최종모형의 적합도의 기준치($GFI \geq 0.9$, $RMR \leq 0.5$)를 충족하거나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도출된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

〈표 11〉 경로계수

경로(선행변수→결과변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P	
고유성	.497	.477	.063	7.935	.000***	
인적자원	수평성	.237	.278	.088	2.680	.007**
	혁신성	.021	.021	.063	.333	.739
문화자원	고유성	.346	.310	.074	4.658	.000***
	수평성	.228	.251	.091	2.513	.012*
	혁신성	.124	.118	.081	1.531	.126
정책지원	고유성	.087	.085	.065	1.325	.185
	수평성	.257	.308	.073	3.509	.000***
	혁신성	.163	.169	.068	2.394	.017*
사회자원	고유성	.272	.309	.053	5.140	.000***
	수평성	.152	.212	.066	2.309	.000***
	혁신성	.009	.011	.058	.154	.878
고유성	수평성	.446	.546	.110	4.075	.000***
수평성	혁신성	.822	.083	9.955	9.955	.000***
고유성	전통가치	.719	.520	.125	5.728	.000***
	미래가치	.154	.146	.096	1.598	.110
수평성	전통가치	.618	.205	3.019	3.019	.003**
	미래가치	.347	.271	.143	2.437	.015*
혁신성	전통가치	.682	.465	.176	3.884	.000***
	미래가치	.144	.130	.126	1.149	.250
전통가치	미래가치	.295	.389	.066	4.492	.000***

주: *p<0.05, **p<0.01, ***p<0.001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은 수평성과 혁신성으로 .76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과 고유성이 .670을 보였으며, 전통가치와 미래가치는 .590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4.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변수간의 공분산이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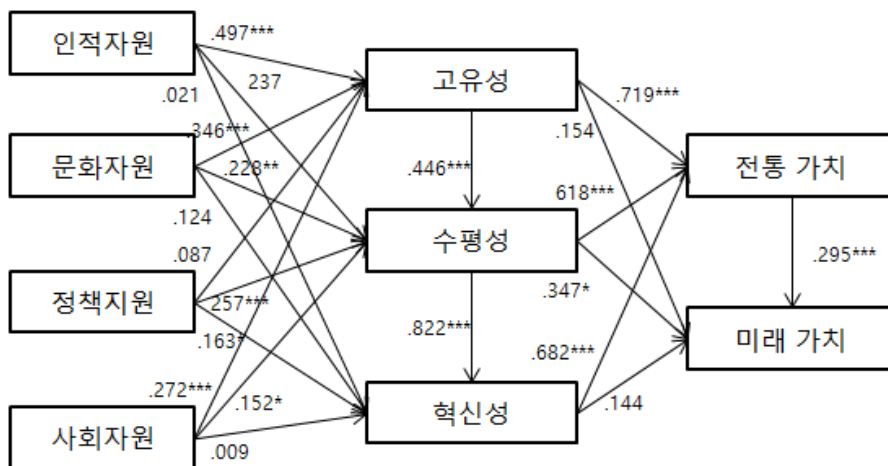
5. 모형 도출

이상에서 논의를 종합하여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융합의 동인에서는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단계로 내부자원에는 인적자원, 문화자원 등의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외부자원에는 행정지원, 사회자원 등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융합의 과정은 지역문

화를 재창조하는 단계에 속한다. 구성요소에는 고유성, 수평성, 혁신성 등을 포함하였다. 융합의 결과로는 생태문화관광이 창출되는 것으로 구성요소로는 전통가치의 복원과 미래가치의 창출 등을 포함하였다. 제시한 융합의 동인·과정·결과 등의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융합의 최종 단계인 융합의 결과는 지역의 자원으로 구축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이의 가치를 재인식케 함으로써 또 다시 융합을 추동하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순환적 속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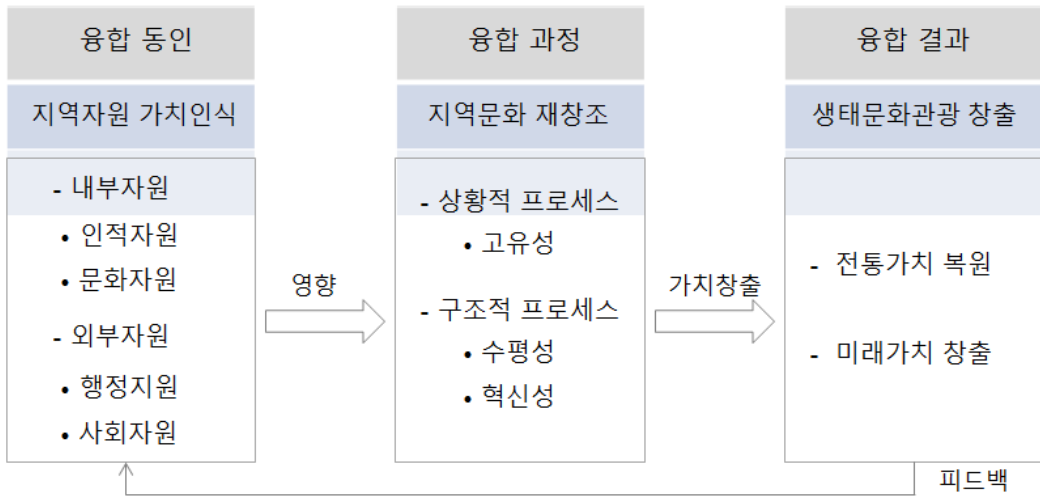
V. 결 론

관광산업은 생산품에 의하여 분류되지 않고, 소비시점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어 관광서비스를 공급한다. 기존의 1·2·3차 산업 등과 융합, 네트워킹 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정보, 기술, 문화, 거버넌스, 인프라 등 관광산업을 둘러싼 거시적 산업환경에 의해 융합의 변화의 속도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주: 모델적합도 : $\chi^2=8.301$, $df=2$, $p=.000$, $GFI=.983$, $AGFI=.819$, $RMR=.016$, $NFI=.985$, $CFI=.983$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그림 3〉 지역문화기반 융합관광 창출모형

(안희자·심원섭, 2013). 따라서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융합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광분야에서 융합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제한적이며, 주로 실천적 의미로서 성과에 집중되어 왔다(장혜원, 2016).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가치창출형 융합관광으로 분류되는 농촌관광을 대상으로 농촌의 문화자원이 관광자원화가 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여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산업에서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연구와 전문가 대상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어 실증조사를 병행하여 정성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은 크게 3가지로 범주화되었다(Weaver, 2007). 즉, 융합의 동인·과정·결과 등이 핵심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구성요소와 범주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범주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융합관광은 융합의 배경에서 성과까지 통합적 관점

에서 이해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창출된 문화기반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에서 융합의 동인은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즉, 마을의 인적자원과 문화자원 등의 내부자원, 그리고 외부자원으로서 행정지원과 이 자원들을 매개하는 사회자원이 서로 연계되어 융합을 추동하게 된다. 인적자원은 지역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는 주민의식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 이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리더십 등 마을이 가지고 있는 주민역량이다. 또한 문화자원은 마을의 자연환경 및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생성되어 온 자원으로 융합관광이 창출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반면, 행정지원은 농촌 관련 정책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사회자원은 마을의 외부전문가 유치 및 이들과의 네트워킹 역량이다.

셋째, 융합의 과정은 지역문화를 재창조하기 위한 구체화 단계로 고유성, 수평성, 혁신성 등이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고유성은 융합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융합형태의 상황적 요

소이다. 농촌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려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화자원을 재현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수평성과 혁신성은 융합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융합형태의 구조적 요소이다. 먼저, 수평성은 마을의 문화자원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주체들 간의 의사결정과 추진체계가 어느 주체를 중심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적인 관계에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민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낸다. 반면 혁신성은 지역문화를 활용함에 있어 주변 마을과는 차별화되는 창의성을 발현하고 문화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넷째, 융합의 결과로는 생태문화관광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가 관광자원화된다는 것은 지역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공동체 복원 및 정체성 확립, 도시와의 교류 확대 등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이에 따른 지역소득 및 인구유입의 증가에서 오는 경제적 가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런 혜택은 지역의 문화생태자원의 가치를 인식케 하는 요인으로 다시 투입되어 융합의 동인-과정-결과-동인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케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관광이 창출되는 과정을 융합적 관점에서 모형을 개발하였다. 융합의 동인에서부터 결과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관광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둘째,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을 정성적·정량적 연구방법을 혼용하여 개발하였다. 관광현상을 해석하는데 문화적 맥락을 통해 통찰하고, 이에 대해 범주간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관점의 커뮤니티 비

즈니스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였다(김영수 외, 2009; 박종안, 2011; 이한성·이상학·윤승원, 2012).

다음으로 본 연구의 사회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기반 융합관광의 창출모형은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농촌뿐만 아니라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독특한 문화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례로 검증되면서 성숙단계에 있는 관광시장에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은 지역, 산업, 행정 등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융합관광은 주체들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추진되기 때문에 관계 지향적 특성이 강하다(장혜원 외, 2017). 본 연구 모델에서 제시된 주체들 간의 수평적 의사결정은 지역, 산업, 행정 등이 서로 공진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자본이 형성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시킴으로써 농촌관광이 가치창출형 융합관광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담당하는 인적네트워크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일부 요인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조사 대상이 제주도의 마을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신겸(2002).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문화경제연구』, 5(1), 139-158.
 강원형(2013). 『주민참여형 지역문화 프로젝트에

- 대한 고찰: 문화매개자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김사현(2006).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복융합 관광과 신관광. 『한국관광정책』, 24, 14-19.
- 김성호(2012). 융복합예술의 현황과 전망. 『예술문화비평』, 7, 14-41.
- 김영수·박종안(2009).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167-206.
- 남인근(2015). 『농촌관광지도자의 역량 모형 분석』.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박시현(2015). 농촌관광 창업현황과 성공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농어촌관광연구』, 22(1), 1-17.
- 박종안(2011).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모델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박한식(2008). 『농촌관광마을 리더의 역량모델 개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방한영(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변우희·이정열·변성희(2012). 지역관광수요에 대응한 관광자원정보서비스융합모형 연구: 테이머마이닝과 상황평가방법론 적용. 『관광학연구』, 36(5), 221-241.
- 배기택(201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 만들기』.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소봉명(2008). 『일본 농촌관광의 발전단계별 정책 유형 분석』. 미발행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신동선(2013). 『농촌관광 창업현황과 성공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신희수(2009). 『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한 공공기업 홍보캠페인 사례연구: 한국관광공사 구석구석캠페인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안희자·심원섭(2013). 『창조경제시대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승영(2009).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 연구: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오우현(2016).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 하남성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윤영석(2011). 『의료휴양관광지 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윤유식·박덕병·이민수(2009). 농촌관광 여행형태 유형화 및 특성분석 연구: 이단계 군집분석과 다중로지트 모델적용. 『관광연구』, 23(4), 337-355.
- 이동원·전미숙·정란수·김수아·김영주(2014). 미래지향 신규 융복합 관광산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 한국관광공사.
- 이한성·이상학·윤승원(2012).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의 평가. 『예술문화비평』, 1-113.
- 장우석(2013). 『농어촌 폐교의 복합자원화를 위한 잠재력평가모델 개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장혜원(2016). 융합관광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40(3), 55-69. <http://dx.doi.org/10.17086/JTS.2016.40.3.55.69>
- 장혜원·오상훈·최병길(2017). 제주 가시리마을의 목축문화 기반 농촌관광 창출에 관한 연구: 융합관광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41(1), 203-221. <http://dx.doi.org/10.17086/JTS.2017.41.1.203.221>
- 전인식(2016). 『여수시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ICT 융합 마케팅전략』.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전진혁(2006). 『농촌지역활성화 리더의 역량분석 및 역량모델 개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정철현(2005). 서울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행정논총』, 28, 53-78.
- 조광식(2007). 『지역문화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서구, 안동시, 의성군을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지식경제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1). 『산업융합

- 100대 사례집』. 세종시.
- 최기동(2010). 『의료관광산업의 제도·정책 검토 및 의료관광의 인적 서비스 제안』.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최성훈(2016). 여가문화로서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여가학연구』, 14(2), 53-68.
- 최아람(2011). 『문화관광 융합형 역세권 구성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최지만(2012). 『MICE 융합산업구축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Apostolakis, A. (2003). The convergence process in heritag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4), 795-812.
- Cohen, E. (1992). Pilgrimage and tourism: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A. Moranis (Ed.), *Sacred journeys: The anthropology of pilgrimage* (pp. 47-61). New York: Greenwood Press.
- Lei, D. T. (2000). Industry evolution and competence development: The imperatives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19(7), 699-738.
- Reisinger, Y., Mavondo, F. T., & Crofts, J. C. (2009). The importance of destination attributes: Western and Asian visitors. *Anatolia*, 20(1), 236-253.
- Rubinstein, M. (1974). An aggregation theorem for securities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3), 225-244.
- Schumpeter, J.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Weaver, B. (2007). Research proposal: Industry convergence-driving forces, factors and consequences. 19th Business Administration Conference(NEF) (pp. 1-20).

2017년 2월 27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7년 9월 5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7년 9월 8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